

#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An effec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n the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never married in their 30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고 선 강\*\*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어 성 연\*\*\*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Koh, Sun-Kang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elfare, Family Welfare Major

Associate Professor, Auh, Seongyeo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marriage initiation(WMI) among the never married in their 30s.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on the WMI. A data set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2009 Wave) were analyzed. We find that the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on the WMI are different by gender. Home ownership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men, but not in the model for women. Women with higher earnings are more likely to be single and unemployed men are more likely to be single than employed men. In the Korean societal contexts, these findings support the bi-standard of financial resour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 marriage market.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고선강(skoh@sungshin.ac.kr)

\*\*\* 교신저자 : 어성연(sauh@cau.sc.kr)

**Key Words** : 결혼의향(willingness to marriage), 만혼(delayed family formation),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the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경제자원(financial resources)

## I. 서론

최근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을 기록한 이래로 최근까지 출산율은 크게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낮은 출산율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을 통한 출산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초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져서, 2011년에는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1.9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1세에 다다랐다. 30년 전인 1981년에 남성은 26.4세, 여성은 23.0세로 미혼 남성들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는 것이, 미혼 여성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의 차이가 꾸준히 줄어들고, 연령대도 높아져 현재는 남성은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에 평균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12). 높은 초혼연령은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는 만혼화 현상의 지표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초혼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결혼 후 남녀의 가임기가 그만큼 줄어들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간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다.

소위 결혼적령기라 부르는 연령에 있는 미혼 남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의 28개 나라들의 평균 초혼연령과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을 비교해 본 결과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스웨덴, 덴마크는 정부에 등록하는 결혼연령 이전에 이미 동거를 통한 사실혼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아 실제 결혼생활 진입연령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초혼연령이 실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미혼남녀가 경험하는 독특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온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관점에서 미혼 남녀들의 결혼지연과 미혼 선택의 이유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관심 감소, 결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발적인 미혼과 독신을 증가시켰고, 결혼대상군의 수급불균형은 비자발적 독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혼 남녀에게 경제적 압박과 장시간의 노동은 결혼을 지연하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김두섭, 2007;

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우리사회에서 미혼 남녀가 결혼을 선택할 때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크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드는 비용이 남녀 합하여 평균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 높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결혼 선택 시 필요한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결혼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소영, 2011). 미혼남녀는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비싼 신혼집과 살림살이 비용, 결혼식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을 점점 미루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결정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신혼집 마련을 남성이 많이 부담하는 관례는 남성의 결혼 결정에 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남녀 모두 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결혼 결정에 경제적 요인이 남녀 모두에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만혼화 현상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미혼남녀를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 안에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또는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유홍준·현성민, 2010; 조희금·어성연·고선강, 2008; 진미정·정혜은, 2010)과 성(김정석, 2006; 은기수, 1999; 이수진, 2005)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 졌다. 결혼의향은 연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미혼의 연령대가 점점 넓어져가는 상황에서 결혼을 지연하고 있거나 만혼의 가능성이 높은 연령의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연구한다면 결혼지연의 영향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전 연령대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평균 초혼 연령을 넘어서는 30대 이상의 미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혼 지연과 만혼화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연령대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을 지연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비교 분석한다면 결혼 지연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발견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미혼 남녀가 결혼을 선택하는데에 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다수의 연구들(조희금 외, 2008; 진미정·정혜은, 2010)은 경제적인 요인을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이나 결혼의향의 영향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다루었다. 경제적 요인을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김정석, 2006; 유홍준·현성민, 2010)은 소득, 자산과 같은 실제 경제자원을 변수로 사용하기 보다는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대리변수를 사용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결혼적령기를 지나고 있는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경제적 요인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경험적인 현상을 학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들 중 경제자원의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평균 초혼연령을 바로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지난 30대의 미혼남녀로 대상을 한정하여 우리나라 30대의 결혼 지연과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미혼남녀의 경제자원과 결혼의향

미혼남녀의 경제자원이 결혼의향이나 결혼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Becker (1991)의 성역할 전문화 이론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전문화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은 남녀가 각기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전문화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창출하여 남녀 모두에게 결혼 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성차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이 시장노동을 전문화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문화하는 것이 결혼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노동 전문화에 적합한 남성의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결혼의향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 Oppenheimer(1997, 김정석, 2006에서 재인용)는 성역할과 소비유형의 변화로 인해 여성에게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이 중요시되면서 경제적 자원이 많은 여성일수록 결혼시장에서 매력을 가지며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미래의 경제전망이 밝은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여 결혼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을 넘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김정석(2006)은 2005년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활용하여 20세-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경제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자원을 취업여부와 부채여부로 측정하였는데 취업여부는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개인부채 여부는 미혼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홍준·현성민(2010)도 미혼남녀의 결혼 지연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세-44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경제 자원의

영향력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에게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었고, 학력과 직업지위도 결혼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고학력, 취업, 높은 직업지위는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미혼남녀의 경제자원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경제자원을 측정한 변수들은 현재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자산과 같은 변수가 아닌 미래의 경제수준을 예측하는 대리변수들이었다. 미혼남녀의 경제자원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이나 자산의 결혼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관련 변인

우리나라의 초혼연령 상승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한경혜(1990)의 연구가 있다. 한경혜는 초혼연령의 상승은 친족망의 약화, 부모-자녀 간 상호 의존성 강화, 혼인비용의 증대가 주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초혼연령의 상승을 미시적 가족관계의 변화보다 거시적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으로 설명하여 결혼이라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족과 사회환경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결혼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 의사결정이지만 가족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 시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은기수(1999)의 연구에서도 결혼 전의 생애 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양상은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먼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만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회에서 일반적이라 여

기는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자는 남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생애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규범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생애과정에 대한 규범보다는 결혼 적령기라는 연령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성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한 김정석(2006)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있어서 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혔다. 여러 관련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성은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과 비교해서 남성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혜택(benefit)과 비용(cost)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로 설명하며, 남성은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을 여성은 결혼으로부터 비용을 더 인지한다고 해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에서 여성의 경우 연령과 결혼의향의 관계가 남성의 경우보다 뚜렷이 나타나 결혼연령에 대한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보다는 독립가구 거주여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여성들이 결혼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들에게 취업여부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이수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석(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학력과 취업여부는 남성에게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 확률이 낮았지만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결혼선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의 연구도 남녀의 결혼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 이후 결혼한 남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고, 취업도 결혼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결혼기회가 교육수준과 취업상황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1990년~1997년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연구자들은 결혼이 고학력 여성들에게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유보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김정석(2006), 이수진(2005)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박경숙 외(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이 여성의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비취업자 여성보다 취업한 여성의 초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고학력 남성이 갖는 매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고, 고용시장 불안과 남성의 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에게 결혼보다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다고 본다.

최새은과 옥선화(2003)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초혼연령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 교육수준, 취업기간이 초혼연령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무직인 경우보다 초혼연령이 빠르다

는 결론을 내렸다.

김혜영 외(2010)는 여성의 만혼화에 관하여 만 29세-44세의 미혼, 기혼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을 탐색한 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과 화이트칼라 집단,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결혼의향이 높았던 반면, 블루칼라 집단과 저소득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의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칼라 집단의 낮은 결혼의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력과 같은 개인의 자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지만, 결혼을 통해서 떠안게 되는 부담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과 교육수준, 직종, 가치관 등이었다. 특히 미혼여성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향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따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다를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이외에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김정석, 2006; 김혜영 외, 2010; 이수진, 2005; 진미정·정혜은, 2010), 교육수준 과 취업 (김정석, 2006; 김혜영 외, 2010; 박경숙 외, 2005; 이수진, 2005; 진미정·정혜은, 2010; 최새은·옥선화, 2003), 부모동거(김정석, 2006)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이혼(Shostak, 1987, 김정석(2006)에서 재인용)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김혜영 외, 2010; 진미정·정혜은, 2010)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자원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알려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부모동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이혼 등 가족관련 변수, 가치관 관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김정석, 2006; 유홍준·현성민, 2010)이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지위 등을 경제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현재의 경제상태를 알 수 있는 소득, 자산,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로 경제자원을 측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30대 미혼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와 결혼의향은 어떠한가?
2.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 효과의 성차는 어떠한가?

#### 2. 분석 자료 및 연구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 206개 표본조사구 안에 총 10,211가구를 포함하였고, 20세에서 44세 미혼남녀 3314명과 기혼여성 3585명에 대해 각각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가구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이삼식 외, 2009). 본 연구는 이 중 미혼자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미혼자 조사자료는 20세에서 44세의 미혼남녀 3314명의 가구관련 사항, 경제활동, 가족생활, 결혼,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미혼자 조사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30대의 미혼남

녀만을 연구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표본은 30세에서 39세의 미혼남녀 668명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원이 해당되는 내용을 찾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에 해당되면 경제적 이유로 분류되었다.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이 지장이 있을까봐에 해당되면 사회적 이유로 코딩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이므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계발),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에 해당되면 가치관 관련 이유로 분류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결혼의향이다. 결혼의향은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를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로 1로 코딩하고, 그 외의 응답(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들은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0으로 코딩하

였다. 독립변수들은 경제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가구소득은 ‘귀 닥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로 측정하였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주택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기집이거나 거주 주택 이외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였고, 아닌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개인근로소득은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귀하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도움 받음, 50%이상 도움 받음, 50% 미만 도움 받음’에 응답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있음((1로 코딩)으로, ‘전혀 도움 받지 않음’에 답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음(0으로 코딩)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들은 연령, 교육수준,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의 이혼, 형제자매의 이혼, 첫째 자녀,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이다.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와 동거여부는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이혼은 부모가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형제자매의 이혼도 같은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첫째 자녀는 응답자가 첫째 자녀인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가치관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 볼 수 있다.’라는 제시문에 대해 응답자가 ‘전적으로 찬성(1)’, ‘대체로 찬성(2)’, ‘별로 찬성하지 않음(3)’, ‘전혀 찬성하지 않음(4)’으로 답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변수명은 공평육아로 하였다. 자녀에 대한 태도를 나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	변수 값	여성(n=244)	남성(n=424)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30~34	178(73.0%)	322(75.9%)	
	35~39	66(27.0%)	102(24.1%)	
만 연령		33.41(2.58)	33.31(2.7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6(31.1%)	167(39.4%)	
	2년제 대학	66(27%)	94(22.2%)	
	4년제 대학 이상	102(41.8%)	163(38.4%)	
취업여부	취업	205(84.0%)	329(77.6%)	
	비취업	39(16.0%)	95(22.4%)	
정규직	그렇다	171(70.1%)	233(55.0%)	
	아니다	70(28.7%)	186(43.9%)	
부모동거	그렇다	149(61.1%)	317(74.8%)	
	아니다	95(38.9%)	107(25.2%)	
부모 이혼	그렇다	18(7.4%)	19(4.5%)	
	아니다	225(92.2%)	405(95.5%)	
형제자매 이혼	그렇다	20(8.2%)	24(5.7%)	
	아니다	221(90.6%)	391(92.2%)	
첫째 자녀	그렇다	93(38.1%)	187(44.1%)	
	아니다	151(61.9%)	231(54.5%)	
공평육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전혀 찬성하지 않음	0(0%)	7(1.7%)	
	별로 찬성하지 않음	29(11.9%)	74(17.5%)	
	대체로 찬성	165(67.6%)	276(65.1%)	
	전적으로 찬성	49(20.1%)	66(15.6%)	
자녀 필요성 (결혼을 하더라도 받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전혀 찬성하지 않음	30(12.3%)	69(16.3%)	
	별로 찬성하지 않음	87(35.7%)	152(35.8%)	
	대체로 찬성	113(46.3%)	171(40.3%)	
	전적으로 찬성	14(5.7%)	31(7.3%)	
독립 변수	가구소득	만원	295.09(199.46)	269.54(183.17)
	주택소유	있음	179(73.4)	328(77.4)
		없음	65(26.6)	96(22.6)
	개인근로소득	만원	177.84(71.39)	186.56(76.39)
부모의 경제적 지원	있음	79(32.4%)	153(36.1%)	
	없음	163(66.8%)	268(63.2%)	
중속 변수	결혼 의향	있음	139(57%)	313(73.8%)
		없음	105(43%)	111(26.2%)



〈표 2〉 30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와 만혼에 대한 생각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여성	남성	$\chi^2$
경제적 이유	그렇다	64(26.6%)	206(49.2%)	
	아니다	177(73.4%)	213(50.8%)	
	합계	241(100.0%)	419(100.0%)	
사회적 이유	그렇다	13(5.4%)	17(4.1%)	.630
	아니다	228(94.6%)	402(95.9%)	
	합계	241(100.0%)	419(100.0%)	
가치관	그렇다	120(49.8%)	146(34.8%)	14.208***
	아니다	121(50.2%)	273(65.2%)	
	합계	241(100.0%)	419(100.0%)	
우리사회의 만혼에 대한 생각				
		평균(표준편차)		t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여성	1.86(.652)	-4.75	
	남성	1.89(.693)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성	1.79(.682)	-4.95	
	남성	1.81(.732)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여성	1.82(.576)	1.239	
	남성	1.75(.639)		

\*\*\* $p < .01$

타내는 변수는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1)’ ‘대체로 찬성(2)’ ‘별로 찬성하지 않음(3)’ ‘전혀 찬성하지 않음(4)’으로 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변수명을 자녀 필요성으로 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30대의 미혼남녀이다. 이들의 연령은 여성이 평균 33.4세이고, 남성은 평균 33.3세이다. 연령대를 보면 30세에서 34세 사이가 여성은 73%를 차지하고, 남성은 76%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의 42%였고, 남성의 38.4%가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중 84%가 취업상태이고, 남성의 78%가 취업을 한 상태이고, 여성의 70%, 남성의 55%가 정규직

이다.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은 여성의 61%, 남성의 75%였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의 7%가, 남성의 5%가 부모의 이혼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8%, 남성의 6%가 형제자매의 이혼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첫째 자녀인 경우는 여성의 38%, 남성의 44%였다.

육아분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 볼 수 있다.’라는 제시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여성은 20%, 남성은 16%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우가 여성은 6%, 남성은 7%를 나타냈다.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57%, 남

성이 74%로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만혼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표과 카이제곱검증, 평균비교와 t-test를 실시하였다.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자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20.0 이다.

### IV. 연구 결과

#### 1. 성별에 따른 결혼에 관한 생각과 결혼의향의 차이

30대 미혼남녀에게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2>에는 30대 미혼남녀가 응답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가치관으로 묶어서 성차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와 가치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26.6%만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1순위로 꼽은 반면, 남성의 49.2%가 경제적 이유를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1순위로 응답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로 답한 사람의 비

율은 여성의 49.8%, 남성의 34.8%로 나타나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미혼남녀가 결혼을 생각하는데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혼 선택에 대한 경제자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던 김정석(2006), 유홍준과 현성민(201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김정석(2006)은 경제자원을 취업여부와 부채유무로 측정하였고, 남성의 결혼의향에는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에게는 경제자원을 나타내는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홍준과 현성민(2010)의 연구에서도 남성에게는 취업, 학력, 직업지위가 결혼가능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오히려 고학력, 취업, 높은 직업지위가 결혼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선행연구에서 경제자원을 측정한 변인들의 차이는 있으나, 두 연구 모두 경제자원의 영향력이 남성에게는 결혼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경제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혼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표 2>의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들을 고려하는 측면이 더 높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30대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의 결혼결정에 경제적 이유가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30대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만혼 현상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이와는 다르다 <표 2>의 아래). 조사대상자들은 제시문을 읽고 전적으로 찬성하면 1, 대체로 찬성하면 2, 별로 찬성하지 않으면 3, 전혀 찬성하지 않으면 4에 응답하였고 남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소득의 불충분과 불안정성, 결혼비용, 안정된 직장이 없는 것에 여성과 남성의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사회에 만혼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에

〈표 3〉 30대 미혼남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변수			여성			남성		
			결혼의향		$\chi^2$	결혼의향		$\chi^2$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연령	30~34세	빈도	54	102	12.05***	56	234	22.04***
		백분율	34.6%	65.4%		19.3%	80.7%	
	35~39세	빈도	51	37		55	79	
		백분율	58.0%	42.0%		41.0%	59.0%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빈도	38	38	2.233	47	120	1.672
		백분율	50.0%	50.0%		28.1%	71.9%	
	2년제 대학	빈도	27	39		27	67	
		백분율	40.9%	59.1%		28.7%	71.3%	
	4년제 대학이상	빈도	40	62		37	126	
		백분율	39.2%	60.8%		22.7%	77.3%	
취업	no	빈도	23	16	4.82**	36	59	8.695***
		백분율	59.0%	41.0%		37.9%	62.1%	
	yes	빈도	82	123		75	254	
		백분율	40.0%	60.0%		22.8%	77.2%	
정규직	no	빈도	34	36	1.372	51	135	0.235
		yes	48.6%	51.4%		27.4%	72.6%	
	yes	빈도	69	102		59	174	
		백분율	40.4%	59.6%		25.3%	74.7%	
부모동거	no	빈도	39	56	0.249	37	70	5.226**
		yes	41.1%	58.9%		34.6%	65.4%	
	yes	빈도	66	83		74	243	
		백분율	44.3%	55.7%		23.3%	76.7%	
부모이혼	no	빈도	94	131	2.539	106	299	0.01
		yes	41.8%	58.2%		26.2%	73.8%	
	yes	빈도	11	7		5	14	
		백분율	61.1%	38.9%		26.3%	73.7%	
형제이혼	no	빈도	91	130	2.655	95	296	10.480***
		백분율	41.2%	58.8%		24.3%	75.7%	
	yes	빈도	12	8		13	11	
		백분율	60.0%	40.0%		54.2%	45.8%	
첫째자녀	no	빈도	59	92	2.534	63	168	0.383
		백분율	39.1%	60.9%		27.3%	72.7%	
	yes	빈도	46	47		46	141	
		백분율	49.5%	50.5%		24.6%	75.4%	

\*\*\* $p < .01$  \*\* $p < .05$

는 남녀 모두 찬성의 강도가 비슷하였고, 전적으로 찬성과 대체로 찬성의 사이에 있었다. 30대 미혼남녀는 우리사회의 만혼 경향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에 찬성하는 정도가 비슷하며 남녀 모두 경제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일반적인 특성에서 다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과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은 결혼의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30대 후반은 결혼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줄었다. 취업여부도 남녀 모두 취업을 한 사람들이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와 형제이혼은 남성의 결혼의향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남성이 동거하지 않는 남성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형제 중 이혼 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 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앞의 분석에서 결혼과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남녀의 차이를 나타낸 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남녀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결혼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여성과 남성 각각의 집단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 모두 모델적합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Pseudo-R<sup>2</sup> (Nagelkerke R<sup>2</sup>)이 각각 .247과 .236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모형에 독립변수들로 가구소득로그, 주택소유, 개인근로소득,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한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주택소유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개인근로소득은 먼저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집단과 소득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고 개인근로소득이 있는 집단을 3분위의 상·중·하로 나누었다. 분석 모형에는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집단과 개인근로소득 상 집단을 투입하여 준거집단은 개인근로소득 하·중 집단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가변수로서 준거집단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이다. 여성과 남성 각각의 모형에서 독립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 $\alpha=0.1$  기준)은 여성표본 모형의 경우 가구소득로그, 개인근로소득이었고, 남성표본의 경우는 가구소득로그, 주택소유, 개인근로소득이었다.

가구소득과 주택소유는 조사대상자의 부모나 가족의 경제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들로서 가족의 경제자원의 유량과 저량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입된 다른 변인들로 통제했을 때, 30대 미혼여성, 미혼남성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갖는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주택소유는 남성표본의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30대 미혼남성의 경우 가족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집을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30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있어서 가계 소득의 영향력은 남녀 모두에게 유사한 반면, 자산(주택)의 영향력은 남성에게만 나타났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은 유량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적은

반면 주택은 가계에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서 목돈 마련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결정한 미혼남녀는 신혼집 비용과 같은 결혼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데, 많은 부분 그러한 목돈 마련을 부모가 도와주게 된다(이소영, 2011; 고선강, 2012). 부모나 가족의 주택소유가 30대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0대 미혼여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결혼에 필요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개인근로소득의 경우는 여성표본과 남성표본에서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30대 미혼여성들은 개인근로소득이 상에 속하는 경우 중·하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결혼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남성들은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근로소득이 중·하에 속하는 미혼남성들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없을, 즉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소득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결혼가능성이 적어진다는 Becker(199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30대 미혼남성은 고소득자가 결혼 의향이 없는 것(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남성표본에서도 개인근로소득 상의 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은 것)의 효과 보다는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유홍준·현성민(2010)의 연구와 김정석(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미혼남성에게는 미취업과 같은 소득이 없는 상황이, 미혼여성에게는 고소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통제변수들 중에 여성표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은 연령, 첫째 자녀, 자녀 필요성으로 나타났고, 남성표본 모형에서는 연령, 형제자매이혼, 공평양육, 자녀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첫째자녀가 아닌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자녀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미혼남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형제자매 중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 볼 수 있다(공평양육)’에 찬성할수록,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자녀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남녀 모두 연령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첫째 자녀인 경우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큰딸 또는 외동딸의 경우 결혼 후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미혼남성은 형제자매의 이혼 경험에 의해 결혼의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결혼을 가족의 결혼생활에 비추어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환론의 맥락(Ritzer, 2006)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이 결혼을 통해서 발생하는 보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미혼남녀는 과거에 결혼이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주변인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한 보상의 크기를 인지할 것이다. 미혼남녀가 경험하는 현재의 자극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으로 과거의 본인들의 경험

〈표 4〉 30대 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제자원의 효과

변수(준거집단)	여성				남성				
	B	SE	p	odds ratio	B	SE	p	odds ratio	
가구소득로그	.666	.281	.018	1.947	.399	.230	.083	1.491	
주택소유(무)	-.653	.415	.116	.520	.674	.326	.039	1.962	
독립 변수	개인근로소득 없음 (개인근로소득 하·중)	-.375	.512	.463	.687	-.874	.387	.024	.417
	개인근로소득 상	-.971	.441	.028	.379	-.528	.361	.144	.590
부모 경제적 지원	-.019	.384	.960	.981	-.124	.318	.696	.883	
연령	-.127	.059	.032	.881	-.188	.048	.001	.828	
교육수준(고졸이하)	.275	.362	.447	1.316	.390	.293	.182	1.478	
통제 변수	정규직	.225	.375	.549	1.252	.012	.297	.967	1.012
	부모동거	.195	.390	.618	1.215	.027	.324	.934	1.027
	부모이혼	.148	.690	.830	1.159	.736	.745	.323	2.087
	형제자매이혼	-.906	.594	.128	.404	-1.473	.527	.005	.229
	첫째 자녀	-.619	.357	.083	.538	.032	.276	.907	1.033
	공평 양육	.246	.305	.420	1.279	.728	.214	.001	2.071
	자녀 필요성	.749	.226	.001	.473	.363	.170	.033	.695
	상수	2.630	2.819	.351	13.86	3.771	2.186	.085	43.436
모델 적합도	Nagelkerke R <sup>2</sup>		.247		.236				
	χ <sup>2</sup>		40.896(p<0.001)		63.049(p<0.001)				

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주변인이 자극을 받았던 경험과 현재의 자신이 받고 있는 자극을 비교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결혼의 보상을 인지하는데 주변인(형제, 자매, 친구 등)의 결혼 결정과 결혼생활의 자극이 주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판단은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에게 더 유효하다.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공평양육이 있다.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미혼남성들 중 부부가 자녀양육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

는 것은 부부역할에 있어서 민주적인 태도를 갖는 미혼남성이 자신의 결혼에 더 호의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특히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30대 미혼남성들은 부모나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

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인이었는데, 이는 결혼 결정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과 부모의 자산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우리사회의 미혼남녀는 결혼의 선택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 과거에는 남성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여성은 혼수를 준비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동부담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러한 부담을 미혼남성의 부모가 함께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혼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로 부모의 주택을 생각하거나, 결혼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는다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기에 맞추어 집의 규모를 줄여서 자녀의 신혼집 마련 자금을 도와주는 용도가 더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결혼의향은 부모나 가족의 주택소유와 의미있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남성의 결혼의향만이 주택소유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남성의 결혼에 가족의 경제자원, 특히 자산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성이 지는 결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그 부모세대가 갖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김순미·고선강, 2012).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모가 자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가계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게 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신혼집 마련, 혼수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은 비단 청년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노년기의 부모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저비용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가격 안정, 전월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결혼식 비용, 신혼살림 마련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혼여성에게는 고소득이, 미혼남성에게는 비취업상태가 독신생활을 지향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자원 중 미혼남녀의 근로소득은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고소득인 경우, 남성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낮았다. 즉 30대 고소득의 미혼여성은 독신생활을 지향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 부분은 30대 고소득 전문직 미혼여성을 일컫는 ‘골드 미스’ 현상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30대 비취업 미혼남성도 독신생활을 지향할 확률이 높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는 비취업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이 가정의 주소득원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30대 남성 비취업자의 결혼의향이 취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비취업이라는 비자발적 이유로 독신으로 남게 된다면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결혼지연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취업 지원 정책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30대 미혼 남성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기 쉽다(양정선, 2012). 따라서 양정선(2012)의 주장처럼 현재의 취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30대의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고용정책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30대 남성들의 결혼지연을 해소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의미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가계 소득과 부모의 주택소유

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었다. 부모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미혼의 자녀들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자신들의 결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로부터 미래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결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녀에게 결혼은 미래에 다가올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가 미혼남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부모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자원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혼의 자녀는 현재에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의존을 생각하고 있고, 미혼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은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고 독립의 의미는 경제적 독립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자녀들은 결혼을 선택할 때 부모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의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미혼남녀 개개인의 이기적인 또는 의존적인 속성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을 고려하는 부분은 논의할 바가 아니지만 미혼남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차원보다 거시적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한경혜, 1990)으로 본다면 미혼남녀의 비자발적 결혼지연과 비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혼남녀가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수 있는 거시적 사회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부족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 기간을 늘리고 이는 취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

져온다. 결혼을 위해서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취업활동의 기간이 짧다면 결국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미혼남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미혼남녀의 비자발적 결혼지연을 완화하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자하였고, 특히 경제자원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제자원을 측정하는 변수로 가구소득, 주택 소유 여부, 개인의 근로소득,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사용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경제자원의 두 축이 되는 소득과 자산을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하여 각각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자산의 측면에서 미혼남성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이외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 등 자산의 종류에 따른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산을 세부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한다면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있어서 경제자원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1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 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2) 김두섭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 3)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4)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5) 김혜영 · 선보영 · 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6) 박경숙 · 김영혜 · 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7) 양정선(2012). 독신의 선택과 노후준비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23-148.
  - 8) 어성연 · 조희금 · 고선강(2010). 전문직 미혼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9) 여성가족부(2011). 2010 가족실태조사.
  - 10) 유홍준 · 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11)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12) 이소영(2011).세대간 자산이전 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05-216.
  - 13)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14) 이삼식 · 최효진 · 오영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15) 조희금 · 어성연 · 고선강(2008).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 16) 진미정 ·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17) 최새은 · 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 18) 통계청(2012). 2011 혼인이혼 통계: 최근 30년간 초혼자료 분석.
  - 19)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24, 103-120.
  - 20) Becker, G.(1991). A treaties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1) Oppenheimer, V.(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s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453.
  - 22) Ritzer, G.(2006). 사회학이론. 한울출판사. 김왕배 외 옮김
  - 23) Shostak, A.(1987). Singlehood in Sussman, M & Steinmets, S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Plenum.

- 투 고 일 : 2013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월 31일